내년 실시 광주시교육감 선거 조기 가열 조짐

윤봉근 25일 민주당 탈당 출마선언 예정

정희곤·박인화 거론… 박표진·양형일도

내년에 실시될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조기에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 장휘국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 도전자들이 일찌감치 선거 채비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출신인 윤봉근 광주시의원은 25일 민주당 탈당과 함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일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는 출마 1년 이전까지 당적이 없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에 25일 민주당 탈당과 동시에 교육감 선거 출마를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출마로 결심을 굳힌 만큼 하루라도 빨리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교육감 도전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의 출마 선언에 따라 조만간 교육감 도전을 준비중인 입지자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 교육감 출마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전교조 출신의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과 비 전교조 출신인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다.

교사 출신들인 이들은 전·후반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내세워 차기 교육감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시의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위원장 또한 광주시 초등학교 교장단 회장을 역임한 경력 등으로 교육계에서는 상당한 지지기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선대 총장을 지낸 양형일 전 국회의원과 최근 광주시교육청을 명예퇴직 한 박표진 부교육감, 부교육감 출신인 김왕복 조선이공대학교 총장도 차기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차기 교육감 도전자들이 윤 의원처럼 조기에 등판할 경우 내년 교육감 선거는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육계 안팎에서는 차기 교육감 선거 구도가 전교조와 비 전교조 출신 또는 진보 대 보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조기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현 교육감과 윤봉근·정희곤 의원 등 모두가 출마할 경우 전교조 내에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비 전교조 출신 후보들끼리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일부 후보들이 진보진영 및 보수진영을 선점하기 위해 이른 시기에 등판할 가능성이 커져 차기 교육감 선거전이 조기에 가열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 50%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감

한국갤럽 전국 934명 조사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시·도 교육감의 잇단 비리와 부정선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절반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이 거주 지역의 시·도교육감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934명(표본오차 ±3.2%포인트·95%신뢰수준)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감의 인지도와 직무평가, 직선제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50%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2%였다. '모르겠다'는 19%였다.

성별로는 여성(45%)보다 남성(54%)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50대가 각 52%로 높았고, 이어 ▲40대(50%) ▲30대(49%) ▲20대(45%) 등의 순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시·도교육감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67%나 됐다. 반면 '알고 있다'는 33%에 그쳤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초·중·고·대학생)가 있다는 응답자(275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5%가 시·도교육감의 이름을 몰랐다.

교육감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여론이 상당했다. '교육감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8%가 '모르겠다'고 응답해 '잘 하고 있다'(22%)와 '잘 못하고 있다'(16%)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진석 추기경, 교황 첫 알현 정진석 추기경이 19일 오후(현지시각)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새 교황 프란치스코를 처음 알현하고 있다. 정 추기경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교황 즉위 미사에 참석해 각국 추기경단과 미사를 공동 집전했으며, 미사 직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새 교황을 만났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靑 '김병관 딜레마'… 새누리 사퇴론 확산

김 "KMDC 주식 지인 권유로 구입" 사퇴 불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가 딜레마에 빠졌다.

2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간 '장관직 수행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그를 새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 KMDC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다, 'KMDC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011년 1월 미얀마를 방문했던 사실을 은폐코자 했다'는 의혹이 이날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김 내정자 임명 문제를 재차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열어 김 내정자의 KMDC 관련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여권 내에서도 김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내정자는 더 이상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국방부의 수장(首長)이 입각하기도 전에 이렇게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과연 영(令)이 서겠냐"며 "대통령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국민여론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사전에 회사정보를 이용해 KMDC 주식을 구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지인의 권유로 주식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를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에 대해 "미얀마 방문을 은폐한 사실이 없으며, 후보자의 출입국 내역 자료를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했다"며 "(제출자료에) 행선국 및 여행목적이 '미상'으로 기록된 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에 작성한 출입국 내역에 그렇게 기록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처럼 본인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으나 사퇴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코레일 타고 백두대간 감상하세요

중부 내륙권 관광전용열차 내달 12일 본격 손님맞이

코레일이 세계적인 관광열차를 표방해 운용하는 '중부 내륙권 관광전용열차'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개통에 이어 시승 행사를 가진 '중부 내륙권 관광전용열차'는 'O트레인(순환열차)'과 'V트레인(협곡열차)'로 나뉘어 운용되며 오는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손님맞이에 나선다.

순환열차인 O트레인은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모티브로 전망석과 커플룸, 패밀리룸, 유아 놀이 공간, 카페 등 총 4량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역을 출발 제천, 태백, 영주 등 중부 내륙 순환 구간을 하루 4회 운행한다.

특히, O트레인을 타면, 국내 최초 객실에 설치된 전망 경관 모니터를 통해 열차가 철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협곡열차인 'V트레인'의 가장 큰 특징은 천정을 제외한 공간을 유리로 처리해 승객의 시야를 최대한 넓혔다는 점이다. 탁 트인 창으로 백두대간의 절경을 감상하는 한편, 개폐식 창문을 통해 상쾌한 공기를 맘껏 즐길 수 있다.

V트레인은 경상북도 분천, 양원, 승부역과 강원도 철암역 등 백두대간 오지 노선을 하루 3회 달린다. 코레일은 V트레인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탄소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접이식 승강문, 조개탄 난로, 선풍기 등 객실 내부 소품으로 복고 분위기를 냈다.

이번 중부 내륙권 관광전용열차의 개통으로 백두대간 관광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기차여행 통합브랜드명을 '렛츠 코레일(Let's Korail)'로 선정하고, 'O트레인'과 'V트레인'에 이어 다양한 관광열차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O트레인과 V트레인은 타기만 해도 즐거운 새로운 철도여행의 패러다임을 여는 것"이라며, "석탄, 시멘트 등을 실어 나르며 경제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한 중부내륙철도가 대한민국 명품 철도관광 코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성장동력 육성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 올해부터 10년간 1조3000억여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산업연구원, 관련 전문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생물재단, 관련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선정된 10대 성장동력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친환경차량 ▲조선·해양 ▲신소재 ▲정밀·고분자화학 ▲의료부품소재 ▲디지털콘텐츠 ▲청정그린 ▲우주항공산업이다.

보고회에서는 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38개를 확정,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비 확보 전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전담반(TF)을 구성해 국가적 프로젝트 수행 여건을 준비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가벼운 치매로 가끔 인지장애 등의 문제를 겪는 노인들도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경증 치매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길을 헤매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약해진 경우 등 약 2만3000명의 노인들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앞)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 : 잡종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성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아파트 밀집지역 병 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지하철 운천역 인근 광송간 대로변 사옥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답.임야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9만원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접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답2,988㎡(904평) 매매가 평당60만원
♣.전원주택지
☆.광산구 오운동97번 시내버스종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음)전2,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충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급매 상가/원룸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월세794만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투룸 4개
▶토지면적 : 330.58㎡ (100p)
▶건축면적 : 737.19㎡ (223p)
▶매매가 6억 8천(융자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융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억8천9백만 대출이자 5.7% 월 116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8만원 년수익율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동아공인중개사
011-647-4747
유동화자산매각
▶순천시 조례동 587-4의 2필지
▶에코그라드 호텔
▶토지2008㎡(607평)
▶건물22759㎡(6,684평)
▶감정가격 450억4천
▶매매가격 220억
문 의 : 011-684-3886